

중년여성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평가와 성인 평생교육적 함의

김승희 · 김향은[†]
(고신대학교)

Middle-aged Female Volunteers' Evaluations on Their Volunteering and Implications for the Adult Life-long Education

Seung Hee KIM · [†] Hyang Eun KIM
(Kos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middle-aged woman volunteers' evaluations on their voluntee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adult life-long education. The subjects were 126 women aged from 35 to 59 who enrolled in the volunteer centers in Busan, Korea. They participated in the survey of the volunteer effects and the factors that made them continue to volunteer. Survey said, middle-aged women volunteers perceived that they got positive feedback from others and themselves and it made them keep doing on volunteering. Based on their volunteering experiences, they reported the personal effects such as positivism, caring, volunteering capacity, industry, maturity and the family member's effects such as positivism and participating in their volunteering. They also mentioned that they had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family relationship such as family relation reinforcement and being indifferent to their own family.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it was the emphasized that supports for volunteering of the middle-aged women that helps them to accomplish the developmental tasks in the middle age are necessary. A scheme of linkage between volunteering and the adult life-long education was also dealt with. Finally, the implications on the further studies in the field were discussed.

Key words : Middle age, Middle-aged women, Volunteers, Volunteering, Adult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I. 서론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성인의 평생교육 중에서도 여성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성인여성의 평생교육은 여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계발하는 동시에 사회발전에도 기여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면서 인생 주기에 있어 중년기가 차지하는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년에 이른 여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증

[†] Corresponding author : 051-990-2335, hekim@kosin.ac.kr

가되는 것을 경험하는 한편, 자녀독립으로 인한 역할 상실, 신체 노화, 장래 전망의 축소, 불안, 자아 상실감 등을 경험하기 쉽다(정옥분, 2007).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변화된 역할과 상황에 적응하면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 계발과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성인 인구의 약 20%가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여 국민들의 새로운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나타날 때, 모든 문제를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면 정부의 재정은 과다하게 팽창될 수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

자원봉사는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인력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 서비스 생산의 중요한 투입요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다. 현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3/4이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자원봉사가 우리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미비한 수준이다(조선주 · 한동우 · 이선행,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중년기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과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년기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또한 선행연구 가운데 대다수의 연구가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같은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의 양과 질 모두에서 제한된 상황이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자원봉사 관리자의 시각에 입각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순기능을 부각시켜 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중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을 성인기 발달과업과 연결 지어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

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자아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를 성인의 발달과업 수행을 돕는 평생교육적 차원으로 연계하여 다뤄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년 여성의 견해를 통해 자원봉사의 참여 및 지속요인과 효과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자원봉사의 교육적 활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년 여성과 자원봉사활동

과거 중년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 동기는 크게 이타주의나 사회적 책임의 동기, 그리고 여가선용, 자기발전, 새로운 경험과 전문지식의 활용, 친교 및 사교 등의 경험추구적 동기로 양분되었다(김성경, 1999). 그러나 최근 들어 여가를 선용하거나 경험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박경혜, 2001). 이와 같은 참여 동기의 변화는 사회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의 요구를 충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중년여성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년여성의 자원봉사 활동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며 세분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중년기 주부들의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박경혜, 2001; 신정운 2002)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활동을 통해 자신과 가족 이외에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나아가 자기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여성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자기계발적이고 사회발전적인 성장의지를 갖게 됨에 따라 소극적이고 가정지향적인 여가활동에서 점차 가족 외부의 사회활동에까지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얻고 있다. 즉 중년기 여성의 자원봉사는 이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를 높이는데 기여함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강정희, 1995; 박혜란, 1993; 이기숙, 1996). 이에 따라 최근의 연구(이말순, 2005; 전성호, 2006; 정지애, 2007; 정진석, 2009; 고희균, 2010)에서는 여성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인구의 특성을 보면 성적 편포가 두드러져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경향이다. 특히 복지 분야 자원봉사의 경우 90%정도가 중년 기혼여성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혜경, 1998).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지 않던 과거와는 달리 산업화 이후 핵가족화, 자녀수의 감소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아울러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여성의 교육수준도 높아졌고 사회의 경제적 수준도 향상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생활의 질 향상을 중시하고 복지적 욕구가 강해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최덕경 외, 2006). 이처럼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 변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의식의 변화는 곧 여성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증대에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인구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여성 개인의 자기 발견 및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를 이루는 데에도 유의함이 있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박태영, 2004).

2. 여성 평생교육

여성 평생교육은 학교 외 교육기관을 통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총칭한다(이성옥, 2004). 중년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은 참가 여성들의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여성평생교육이라는 영역이 별도의 평생교육분

야로 구분되어야 할 근거는 여성평생교육의 근거에 여성은 남성과 다른 교육대상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여성은 남성과는 상이한 역사적 사회적 삶의 양식을 개발하여 삶의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삶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의 요구는 상이하다. 다시 말해 여성은 남성과 다른 삶의 구조를 유지해옴으로써 여성의 경험과 이를 재구성하는 방식이 상이하므로 여성 평생교육이 별도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곽삼근, 2005)

여성들의 삶은 사람을 키우는 중요한 일이었다. 사람을 기른다는 것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었고 좀 더 나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여성자신에게도 교육이 필요하였지만 과거 여성들에게는 그런 혜택은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제까지 여성들이 해온 역할은 자녀에게 있어서 평생교육자의 입장이었다고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정 내의 돌봄자라는 극히 제한된 단어로 여성의 입지를 국한시켜 왔다고 보여진다. 평생 교육이란 인류의 역사가 존재한 이래 줄곧 있어 왔던 교육 본연의 본질적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회적, 교육적 필요에 의해 최근 새로이 부각되고 그 의미가 새로이 개진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변하면서 여성들은 사회참여의 기회가 증대되었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교육의 장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키워갈 수 있었다. 이들은 이제 기존의 남성들이 주도해오던 사회 각 분야에서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가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생애를 통해 배우는 평생교육의 학습주체가 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평생교육은 사회변동에 따른 여성들의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학교 교육에서 받은 성차별적 교육내용의 극복을 통해 자아실현과 생애계획의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들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김유신, 2002).

이와 같이 여성평생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추구하고 있는 여성의 권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교육이란 분야에서 불평등을 받고 소외되어 왔던 여성들에게 잠재력 개발과 교육기회 보충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평생교육 필요성과 기회의 확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김규옥, 2006). 그리고 평생교육의 실제에 있어 성인여성의 발달단계와 발달과업을 고려하는 동시에 사회적 차원으로도 기여함이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발전방안의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성인여성의 평생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여성 학습자들의 평생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매우 강할 뿐 아니라, 다양한 참여 동기를 갖고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최운실, 1986; 곽삼근, 1997; 권두승, 2005). 그러나 시간적 제약이나 교육경비 부담, 가족의 몰이해와 비협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다양한 상황적 저해요인과 학습능력에 대한 자신감 상실, 오랜 학업중단에 따른 학습 지속의 자신감 상실과 두려움, 학습 그 자체에 대한 공포감과 학습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남성 학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 참여를 저조하게 하거나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곽삼근, 1997; 정인순, 2001; 김양희 외, 2002).

김혜숙(2003)은 성인학습자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성인 여성학습자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교육의 의미와 학습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인과 개인의 가정생활,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임숙경(2008)의 연구에서는 공공 평생학습기관 및 민간 평생학습기관에 참여하는 성인여성학습자의 참여성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다양한 평생학습이 성인 여성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배경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 때, 정규직에 종사할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미혼일 때 참여성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 참여성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연령, 직업, 소득수준, 생애단계 등의 변인에 따라 다양한 여성들의 배경을 고려하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여성은 평생교육을 통해 개인의 충족된 삶을 위한 욕구와 사회활동참여를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평생교육은 여가활용의 의미가 강하여 참가자의 개인적인 만족이 국가 및 사회발전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의 자기개발 및 사회참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여성 평생교육의 한 분야로서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접근

본 연구는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년 기혼여성의 인식과 견해를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년 기혼여성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내용분석은 개방적이고 비구조화된 상황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응답자의 관점과 다양한 반응을 매우 심도 있게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여, 아직 개발되지 않은 연구주제로 새로운 내용을 알아나가는 연구나 내면적인 의식이나 가치를 다룰 수 있는 연구에 강점을 지닌다(Weber, 1990).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질적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양적 자료 분석에 활용되는 빈도분석 방식을

함께 활용하였다.¹⁾ 즉, 자원봉사에 대한 중년여성 자원봉사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질적 방법 중 내용분석을 선택하면서 내용분석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주관적 진술을 보다 풍부하게 확보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수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방법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기입식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자료의 분석방법으로 내용분석을 활용하였고, 이와 아울러 초점집단 면접을 실시하여 그 응답 결과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자기기입식 개방형 설문조사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응답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고 응답 내용에 나타난 연구 대상의 주관적인 인식과 의미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개방형 설문조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내용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중년 기혼여성의 자원봉사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질적 접근 방법을 선택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질적 서술 자료를 수량적 자료로 전환하여 분석하는 양적 접근을 병행하였다. 또한 초점집단 면접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분석적 접근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²⁾.

2.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개방형 설문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편의 추출방법³⁾을 통해 부산광역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중 최근 6개월 동안 자원봉사 경험이 3회 이상인 35~59세의 중년 기혼여성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4명을 선정하여 초점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은 보통 양적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과 구별된다. 즉, 연구자의 틀로서 분류되어진 유형에 따라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일반 양적 설문지와 달리 개방화된 질문지를 통해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응답자의 응답이 주관적으로 기술됨에 따라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표현됨으로 객관화된 양적 설문지와 구별된다. 설문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동기와 이유, 자신에게 있어 자원봉사의 의미, 자원봉사의 경험과 내용, 자원봉사 후 일어난 변화, 자원봉사에 대한 가족의 반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의 배부는 본 연구자가 부산광역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해당 기관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2011년 5~8월에 걸쳐 총 129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이 기입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12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초점집단 면접은 개방형 설문조사를 마친 후 10월에서 11월 사이 실시하였다. 초점집단 면접은 앞서 실시한 설문응답의 내용분석에서 나왔던 결과를 토대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면접자가 개방적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집단 성원들끼리 자원봉사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공감하면서 각기 다른 생각들을 나누고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게 되는 상호작용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내용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한편, 참여자들끼리의 상호작용과정 분석을 통해 보다 풍성한 내용과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 1) 하나의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며, 결과의 상호보완으로 인해 연구주제와 대상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Denzin & Lincoln, 1994).
- 2) 본 연구에서 시차를 두고 수행된 초점집단 면접과 개별 심층면접은 시간이 경과해도 동일한 것에 대해 말한 내용이 일관될 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Patton, 1990)는 조사 원리에 입각하여 실시되었다.
- 3) 질적 연구에서 표본추출의 적절성은 연구주제와 목적에 따라 조사 참여자로서 가장 적절한지를 알고 대상을 선정하는 편의추출 방법으로 충족 된다(신경림 외, 2004).

3. 분석 방법

내용분석은 비구조화된 응답을 특정한 분석 준거나 관점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거나 재해석하여 결론을 추론하는데(Weber, 1990), 본 연구에서는 설문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에 전형적으로, 그리고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와 의미들을 부호화하고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해석하고자 빈도 분석을 사용하였다⁴⁾. 동시에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기술한 내용과 면접조사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기술방식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주제에 관한 의미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였다.

빈도분석은 조사 참여자들이 스스로 기록한 응답내용을 차례로 정독하여 자료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개념과 패턴을 확인한 후 범주화하여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개별문항별로 질문의 연관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자원봉사 참여 및 지속요인과 자원봉사의 효과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각 차원별로 자료를 분류하고 분류된 자료를 여러 차례 정독하면서 새로운 개념들을 발견할 때마다 기록하였다. 즉, 새로운 개념이나 단어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 새로운 범주를 명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개념들 간의 상이성이 높고 빈도가 낮을 경우 범주를 새로 추가하지 않고 기타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범주화를 통해 구성된 주제에 해당하는 단어나 개념에 대해 빈도수와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이처럼 질적 자료를 수량적 자료로 전환하여 양적 연구를 통해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의 해석적 유연성과 가능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Padgett, 2001).

면접자료에 대한 분석은 우선 면접 결과의 내

4)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데서 수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질적 자료를 분석하거나 제시하는데 수치를 이용하는 것이 질적 연구의 고유한 성격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며(Padgett, 2001), 본 연구의 경우 질적 연구로서는 표본이 큰 편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중년 기혼여성 자원봉사자의 인식을 수량화 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용을 텍스트로 옮기고 이를 원자료로 한 후 자료에 대한 반복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글로 옮겨진 면접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면접 참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면접 자료를 자세히 읽어나가면서 의미단위별로 범주를 구성하여 앞서 실시한 설문 분석결과와의 맥락적인 관련 아래에서 분석적 개념의 자료로 인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조사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개방형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년기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인구학적·배경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연령	30 대	19(15.1)	종교	기독교	26(20.6)
	40 대	46(36.5)		불 교	56(44.5)
	50 대	61(48.4)		천주교	11(8.7)
학력	고졸이하	60(47.6)	기 타	기 타	4(3.2)
	전문대졸	9(7.1)		없 음	29(23.0)
학력	대졸이상	50(39.7)	100 미만	100 미만	6(4.8)
	무 응답	7(5.6)		월평균	100~200미만
자녀 수	0 명	8(6.3)	수 입 (만원)	200~300미만	28(22.2)
	1 명	31(24.6)		300~400미만	27(21.4)
	2 명	68(54.0)		400 이상	24(19.0)
	3명 이상	19(15.1)	무 응답	22(17.5)	

연령은 50대가 61명(48.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이루었고, 그 다음은 30대 19명(15.1%), 40대 46명(36.5%)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60명(47.6%)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대졸 이상 50명(39.7%), 전문대졸 9명(7.1%)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68명(54.0%)으로 가장 많았으며, 1명인 응답자는 31명(24.6%), 3명 이상은 19명(15.1%), 무자녀는 8명

(6.3%)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불교와 기독교가 각각 56명(44.5%)과 26명(20.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43.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2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이 각각 20% 정도로 비슷한 비율을 이루고 있었다.

연구대상의 자원봉사 경력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자원봉사 경력

항목	내용	빈도(%)
활동 동기 및 경로	경험자의 권유와 소개	44(34.9)
	본인 스스로	17(13.5)
	기관 및 단체를 통해	16(12.7)
	여가활용과 자기개발, 경험축적	15(12.0)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7(5.5)
	사회참여 및 사회 기여	6(4.7)
	도움 받은 단체에 도움을 주고자	4(3.2)
	종교적 신념	3(2.4)
	자녀교육	3(2.4)
	무응답	11(8.7)
활동 내용	단순노력봉사	89(70.6)
	교육 및 재능나눔	14(11.1)
	업무보조	11(8.7)
	상담	4(3.2)
	지역사회조직 및 집단활동	3(2.4)
무응답	5(4.0)	
활동 기간	1년 미만	6(4.8)
	1년 이상 ~ 3년 미만	20(15.9)
	3년 이상 ~ 5년 미만	12(9.5)
	5년 이상 ~ 10년 미만	24(19.1)
	10년 이상	27(21.4)
무응답	37(29.3)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및 경로는 주변 경험자의 권유와 소개가 34.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중년 기혼여성의 자원봉사가 사적 관계망의 연장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임을 시사한다. 본인 스스로 시작한 경우는 13.5%이며,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사회단체를 통해 시작한 경우는 12.7%, 자기개발과 경험 축적의 동기로 시작한 경우가 12.0%였다. 활동내용은 단순 노력봉사가 70.6%로 가장 많았고, 교육 및

재능나눔 11.1%, 업무보조 8.7%, 상담 3.2%, 지역 사회 조직 및 집단활동 2.4%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수가 참여하고 있는 단순노력봉사는 급식 및 조리보조, 도시락 배달, 청소나 목욕, 가사지원 등 가사노동의 성격과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돌봄 등 이었다. 활동기간은 10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5~10년 미만이 19.1%로 5년 이상의 장기 활동자가 많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초점집단 면접조사에 참여한 4명의 자원봉사 여성의 배경적인 특성과 이들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표 4 참조).

<표 3> 초점집단면접 참여자의 배경적 특성

연번	연령	학력	자녀 수	동거 가족수	결혼 기간	월 소득	종교
A	52	고졸	2	3	28년	300	천주교
B	40	전문대졸	2	4	12년	230	무교
C	36	대학재학	2	4	13년	250	기독교
D	41	전문대졸	1	3	13년	220	무교

<표 4> 초점집단면접 참여자의 자원봉사 경력

연번	활동동기	참여경로	활동분야	활동기간 (활동빈도)
A	종교적 신념	성당에서 연계	장애아돌봄	13년(월2회)
B	여가활용	주민자치 센터	아동미술지도 주방보조	6년(주2회)
C	사회경험	자발적 기관방문	아동학습지도 노인컴퓨터교육	2년(주2회)
D	주변의 권유	권유자의 연계	장애인활동보조 무료급식	1/4년(주1회)

2. 분석 결과

가. 자원봉사 참여 및 지속요인

자원봉사의 참여 및 지속요인에 관한 질문에 응답한 352개의 진술 내용을 개념화·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자타의 인정', '자아개발 및 자아성찰', '자공심과 유능감'의 세범주로 분류되었다(표 5 참조).

<표 5> 자원봉사의 참여 및 지속요인

범 주	빈도(%)
자타의 인정	282(80.1)
자아계발 및 자아성찰	34(9.7)
자긍심과 유능감	29(8.2)
기타	7(2.0)
합 계	352(100.0)

※ 자원봉사의 참여와 지속기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378명의 응답 중 무응답(21)과 '없음(5)'을 제외한 352명의 진술을 개념별로 부호화함.

중년여성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지속요인은 '자타의 인정'이 80.1%로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자아계발 및 자아성찰'이 9.7%, '자긍심과 유능감'이 8.2%, '기타' 2.0% 순으로 나타났다.

(1) 자타의 인정

자원봉사의 지속기제 중 자신과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개념을 범주화한 결과 자원봉사에 대해 스스로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기쁨을 얻는 '만족과 보람'이 61.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자신들로 인해 수혜자가 변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혜자의 반응'이 30.9%를 차지하였고, 자기 자신에 대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사회의 일원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쓸모 있음'이 7.4%로 나타났다(표 6참조).

<표 6> 자타의 인정의 내용과 빈도

범주	내 용	빈도(%)
쓸모 있음	•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21(7.4)
	•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음	
	• 나도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 내가 사회의 일원이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다	
	•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조그만 도움이 누군가에게 기쁨	

만족과 보람	• 인간의 정을 느끼면서 행복함	174(61.7)
	• 좀 더 행복해 지려는 자기만족	
	• 내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고 기쁨 얻기	
	• 수고를 통한 기쁨	
	• 나눈 만큼 채워지는 보람	
	• 내가 즐겁고 행복함	
수혜자 반응	• 인간으로써 뿌듯함과 행복함	87(30.9)
	• 마음의 호뭇함, 활력소	
	• 대상자의 기쁜 얼굴을 봄	
	• 바뀌어 가는 그들의 모습	
	• 수혜자가 고마움을 표현함	
	• 만족하는 어르신들의 모습	
합 계	• 상대의 행복함	282(100.0)
	•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씀	
	• 봉사 받는 이들이 좋아함	
	합 계	

본 연구의 대상의 대다수가 전업주부였는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스스로도 낮은 지위와 자존감을 부여하기 쉽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들 여성의 자원봉사로 인한 자신과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은 이들의 자존감 향상과 더불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지속적인 자원봉사의 지속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제시된 참여자 A의 진술은 자신의 자원봉사로 인해 자녀와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러한 인정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고 있음을, 참여자 B는 자원봉사로 자신이 어딘가에 쓸모 있는 존재라는 확인을 받았음을, 참여자 C는 자원봉사 대상 아동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에 보람을 느꼈음을 진술하고 있다.

우리 언마가 참 좋은 일을 하는 구나... 특히 우리 남편이 자기는 못하지만 아내가 하는 거 너무 기뻐하는... [A]

아동센터에서 저한테 참 까칠하던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 집에 갈 때 함께 가면서 아이의 뺨을 조금 잃어 주고 나니까 애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참 잘했구나 느꼈고 자원봉사한 보람을 느꼈어요. [B]

집에서는 남편이고 엄마고 내가 항상 못한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봉사를 하러 가면 조금만 뛰든지 하면 잘한다라는 소리만 들어서 내존재가 가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B]

(2) 자긍심과 유능감

자긍심과 유능감으로 분류된 진술의 개념들을 범주화한 결과 '개인역량강화'와 '부모역량강화'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표 7 참조).

<표 7> 자긍심 및 유능감의 내용과 빈도

범주	내용	빈도(%)
개인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단에 맞춰 실력을 발휘 • 내 능력을 사용하여 봉사함 • 내가 할 수 있는 일 •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줌 • 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 	22(75.9)
부모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들에게 본보기 • 우리 아이의 인성교육에 도움 • 아이들의 변화·발전 • 엄마의 모습을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 우리 이가 건강한 마음을 배움 	7(24.1)
합 계		29(1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 줄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는 '개인역량강화'가 75.9%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를 통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자긍심이 생겼다고 느끼는 '부모역량강화'는 24.1%로 나타났다.

중년 여성의 자원봉사는 아이를 돌보고 주방 일을 도와주는 활동을 가정 내에서 수행 했을 때 보다 더 큰 유능감을 안겨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자원봉사는 주부로서 아이들을 대하고 어르신을 섬기고, 가사 일하는 것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그들이 인식하는 차원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능감은 자신에 대한 재인식과 자신감으로 나타나고 자녀교육에도 순기능을 발휘하

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컨대, 자신들이 하는 자원봉사가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도 자원봉사의 지속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안에 들어가면 애들 밥을 먹이는데... 밥이자기 보다는 죽으로 된... 애들 먹고 먹이는데 이게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왜그러냐 하면 애가 먹으면 90%는 다시 나탄. 그걸 먹여야 되요. 그러니까 애 키워본 사람이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비위 상해인 생각보다 훨씬... 그러니까 참 비위가 엄청 좋은 사람이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애들이어도... [A]

급식은 아줌마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계속 하는 거예요. [D]

내가 그... 00이라는 아이를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 집에 혼스테인을 데리고 왔어요. 나이는 8세이나 정신연령은 둘도 안됐고... 우리 아이들이 욕상에 올라가서 자전거도 태워주고 그랬지. 우리 딸 같은 경우에 크레파스에 00이꺼 이래 적어가지고 같이 그년도 그려주고 욕상에서 자전거 태워주고 그랬지요. [A]

(3) 자아개발 및 자아성찰

중년 여성의 자원봉사 지속기제 중 자아성찰 및 성숙에의 기여를 범주화한 결과 '자아성찰'과 '자아개발'의 두 유형으로 분류되었다(표 8 참조).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생경험을 쌓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아개발'이 58.8%로 나타났다. 중년 여성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 듯하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기회로 삼거나 개인적 성장이나 사회진출을 위한 경력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년 기혼여성들은 아내나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우선적으로 갖기 쉬운데 자원봉사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적 유능감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자아계발 및 자아성찰의 내용과 빈도

범주	내용	빈도(%)
자아 계발	• 자기 발전과 정서에 도움	20(58.8)
	• 자기개발, 많은 것을 알고 싶음	
	• 사회에 대한 기여와 나의 계발	
	• 나의 단점을 일부분이라도 고쳐 빈틈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음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함	
자아 성찰	• 인생경험, 성장, 자아성취감	14(41.2)
	• 자아실현, 많은 것을 얻음 등	
	• 나 자신이 신비스럽다	
	• 다른사람을 이해하고 배운다는 느낌	
	• 자기반성, 그래야 내가 올바른 정신과 정서를 유지함	
합 계	• 내 자신의 정화	34(100.0)
	• 활동하는 동안 나를 볼 수 있음	
	• 나를 찾을 수 있는 계기	
	• 나 자신에 대한 재인식	

이러한 인식을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년 여성들은 자신들의 자원봉사가 사회적 차원으로도 기여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자원봉사를 지속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면접 참여자들의 진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내가 우리 애들(지역아동센터 아동) 때문에 자격증 따게 됐거든요. 누군가 이전 말을 했어요. 자격증 없이 그냥 자원봉사니까 애들 가르치는 거 아니냐고... 그말에 사실 충격을 줘 받았어요... 그래서 그말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조금 더 해가지고 우리 애들도 자격증 있는 쌤한테 배우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배우게 됐거든요. [B]

봉사를 하다 보니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기고... 애들 중학교 가기 전에 무언가 익은 시작해야겠고... 여자들이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집에 한참 있다 보면 마트나 보현 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대학에 편입을 했어요. [C]

위의 진술내용 중 사례 B의 경우 진술과정에서 “우리 애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였는데 연구자나 다른 면접참여자들이 당사자의 자녀로 생각하였으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사례 B는 자신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우리 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서 흥미로워하였다.

특정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자원봉사는 오랜 기간 돌봄을 통해 단순한 친밀성을 넘어서 가족관계와 유사한 유대를 형성하게 한다. 자원봉사 대상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중년기의 발달과업인 생산성, 곧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신을 정화하고 스스로에 대해 새로 인식한다고 느끼는 ‘자아성찰’은 41.2%로 ‘자기계발’ 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아래에 기술된 참여자 A의 진술은 자원봉사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반성, 재인식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나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 그런 생각이 들면 안되지않 내가 얼마나 우리 애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가 뭐 내 가정어... 내가 참 저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애들을 보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나를 돌아보는 계기... [A]

나. 자원봉사의 효과

(1) 자원봉사의 효과에 대한 인식

자원봉사의 효과에 대한 중년 여성 봉사자들의 인식은 개인적 효과와 가족적 효과, 가족관계적 효과로 구분되었다. 개인적 효과와 가족적 효과의 차원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적 효과에 대한 인식 역시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나, 부정적인 효과를 언급한 경우도 일부 보고되었다(표 9 참조).

<표 9> 자원봉사활동 효과에 대한 인식

구분	개인 효과	가족 효과	가족관계적 효과
효과 있음	긍정적 117(92.8%)	137(82.5%)	76(88.4%)
효과없음	부정적 0(0.0%)	0(0.0%)	10(11.6%)
무응답	6(4.8%)	18(10.8%)	0(0.0%)
	3(2.4%)	11(6.7%)	0(0.0%)
합계	126(100.0%)	166(100.0%)	86(100.0%)

(2) 자원봉사의 개인 효과

자원봉사로 인한 봉사자 자신의 개인의 효과를 보고한 117명의 진술을 개념별로 분류해본 결과, 긍정성 향상, 배려심 증대, 봉사역량 강화, 근면성 함양, 인격적 성숙의 다섯 범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표 10 참조).

<표 10> 개인적 효과의 내용과 빈도

범주	내용	빈도(%)
긍정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아지고 활기차게 됨 • 마음의 기쁨, 자신감 •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된 마음 •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 • 마음이 넓어짐 • 사랑과 용서, 자상한 마음 	78(66.7)
배려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싶어지는 것 • 남을 볼 수 있는 마음 •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함 	18(15.3)
봉사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에 대한 중독성 • 아무나 붙잡고 봉사하러 가자고 전하는 내 모습, • 자원봉사의 종류를 알아봄, 	9(7.7)
근면성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공심과 부지런함 • 예전 보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 매일매일 나누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함, 	7(6.0)
인격적 성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깊어진 생각 • 나를 돌아보게 됨 • 많이 성숙해짐 • 이성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냄 	5(4.3)
	합계	117(100.0)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원봉사로 인한 개인적 차원의 효과는 긍정성 향상(66.7%), 배려심 증대(15.3%), 근면성 함양(6.0%), 인격적 성숙(4.3%)으로 나타났다. 중년 기혼여성 자원봉사는 이들에게 성숙을 가져다주고, 긍정적인 사고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자신과 처지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을 주는 것으로도 인식되었다. 아래의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도 이러한 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장애아를 정말 자녀로 두었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감사하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겠구나... [A]

친구들 만나면 자랑스러워하고 하면서 친구에게도 자랑스러운 것을 많이 권했죠. [B]

내가 많이 바뀌었지요, 우리 신앙이 자봉하기 전에는 내가 까칠하고 우울했는데 자봉하고부터는 너그러워지고 활기차졌다고 말하네요. [C]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돕는. 이웃에 무슨 일이 있으면 들여다보고... 도와주게 되는... [D]

(3) 자원봉사의 가족 효과

본인의 자원봉사로 인해 가족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 경우로 보고된 137명의 진술을 개념별로 분류해 본 결과, 가족원 개인의 가치관 변화(65.0%)와 가족원의 자원봉사 활동에의 동참(28.5%)이 주된 효과로 인식되고 있었다. 가족 효과의 범주별 내용과 빈도는 <표 11>과 같다.

중년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은 그 가족으로 하여금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엿보이는 면접조사 참여자의 진술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1> 가족 효과의 범주별 내용과 빈도

범주	내 용	빈도(%)
가치관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들지 않고 바르게 성장함 • 생각이 변함 • 나눔의 의미를 느낌, • 약자를 보는 눈이 달라짐 • 가족전체가 타인을 생각하게 됨 	89(65.0)
가족의 동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됨 • 동행, 동일시하게 됨 • 가족들도 동참함 • 더불어 가족봉사를 함 	39(28.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당하고 자신 있게 됨 • 좋은 영향 •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 	9(6.5)
합 계		137(100.0)

(애들이 자원봉사 가는 데) 떠나가기도 하고... 그 아를 데리고 똥갓아 혼스테이로 두 번이나... 애들은 헨라디로 굉장리 좋아했지. 우리 딸이 초등 학교 3학년 때 반장할 때 저거 반의 지진아 같은 아들을 지가 데리고 타가지고 가르쳐주고... [4]

남편이 자원봉사하는 아내를 살인만 살고 맨날 뭐 집안에만 있는 여자가 아닌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그래서 딸이 보는... [6]

애들이 길가다 북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도타줘야 하지 않냐고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장애인들을 보아도 별 거부감을 갖지 않아요.. [2]

(4) 자원봉사의 가족관계적 효과

중년기 자원봉사자 여성이 지각한 자원봉사의 효과는 가족관계적 차원에서의 효과로도 지각되고 있었다. 한편, 가족관계적 효과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효과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정적인 효과도 소수 보고되었다. 즉, 중년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와 가족 서로간의 긍정적 인식이나 관계 증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압도적

으로 많았지만, 자원봉사로 인해 가족에게 소홀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 부정적 효과도 소수 나타났다(표 12 참조).

<표 12> 가족관계적 효과의 범주별 내용과 빈도

범주	내 용	빈도(%)
관계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훨씬 다정해짐 • 가족의 소중함을 더더욱 느끼게 •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함을 느낌 	89(65.0)
가족에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하는 시간 부족 • 가족 간의 대화 시간 감소 • 집을 비울 때 미안한 마음이 듦 • 집안일에 소홀해짐 • 시간적안 손해를 보게 한 것 	10(11.6)
합 계		86(100.0)

가족관계적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효과로 분류된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로 인해 시간의 부족을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소홀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를 통하여 중년 기혼여성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역할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을 겪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심리적인 고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과거나 현재에 있어 이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왔거나 앞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관계적 차원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엿볼 수 있는 면접조사 참여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밖에 나가보니까 신강 고머은 줄도 알게 되고 그 래서 우리 신강한테 더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강은 자봉가는 거 좋아나 하고.. [6]

정말 내가 우리 가족과의 관계 아들과 딸과 남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겠다. [4]

남편은 봉사활동에 대해 나 좋아서 하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집안이나 자신에게 신경을 덜 쓴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D]

자원봉사를 했다고 좋은 언마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그건 그냥 내 만족이지. 사실은 그러면서 더 다른 애들 쳐다본다고 우리 애들 못 쳐다볼 때도 있거든. 그니까 다른 애들한테는 조금 더 약간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애들한테 배려가 안되니까... 더 소홀해지고, 더 독재가 되고... [B]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35~59세의 기혼 여성 126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통해 자원봉사의 지속요인과 그 효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중년 기혼여성은 자원봉사를 통해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대해 유능감을 가지고 재인식함으로써 자원봉사를 지속하고, 그 결과 긍정성, 배려, 봉사역량, 근면성, 성숙 등 개인의 효과와 가치관변화, 봉사활동 동참과 같은 가족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가족관계적 차원에서의 효과도 보고되어 가족 상호간의 관계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와 자원봉사로 인해 가족에 소홀해지는 부정적인 효과도 일부 지각되었다.

중년기 여성은 대부분 베이붐 세대, 386세대로 디지털 문명 세대로 강한 독립심과 자율성, 능동성, 감정 개방, 자유로운 표현과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자기개발과 혁신을 추구하는 그들의 자녀 세대에 비해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여성교육보다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온 세대로 결혼과 양육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만족시켜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여성이 가족에게 두고 있는 자아정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중년기 여성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적 차원에서의 자원봉사 참여와 활용이 이들에게 성장과 발달의 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개인적 요구와 사회의 요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중년기 자원봉사의 평생교육적 의미와 적용과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년 기혼여성의 자원봉사 지속요인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과 긍정적 평가는 중년기 발달과업 중 하나인 생산성 발달 수행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중년기의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에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교육의 변화는 팔목할 만하다. 지금껏 특정 시기에 특정 대상에게 특정 내용과 방법으로 운영해 온 교육을 넘어선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이 평생 필요하게 되었다(기영화, 2004). 이러한 전세계적 교육체제의 급격한 변화의 중심축으로 평생교육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김진화 외, 2008; 정주영, 2012). 이러한 맥락에서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중년기 자원봉사와 성인교육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교육의 내용과 방법, 운영의 측면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분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평생학습에 있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증대에 대한 요구가 한층 부각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윤명희 외, 2010).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사회 내의 소수집단(minority groups)을 포함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와 평생 교육을 연계할 경우,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자원봉사의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드러난 중년 여성 외에도 중년 남성이나 다른 연령대에 해당하는 다양한 대상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도의 성공적인 수행과 그 긍정적인 효과의 지속적인 창출과 생산적인 파급 효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즉, 자원봉사의 평생 교육적인 기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성인교육 또는 전생애교육으로 현실적으로 도입하도록 체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경험적·객관적·과학적 연구의 꾸준한 뒷받침과 관련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적극 촉구되는 시점에 있다.

참고 문헌

- 강정희(1995). 중산층 주부의 여가에 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계선자 외(2012). 가족과 문화, 서울:신정.
- 고희균(2010).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혜영(2012). 자원봉사론, 서울:신경.
- 기영화(2004). 평생교육방법론, 서울:학지사.
- 김규욱(2006). 여성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비교 분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경(1999a). 여성자원활동의 현황과 육성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_____(1999b). 여성자원봉사자의 활동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2), 9-30.
- 김양희 외(2002). 경기도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와 참여 방해 요인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15, 35-55.
- 김유신(2002). 여자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 목적과 교육프로그램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화 외(2008). 평생교육사 직무모델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4(1), 1~31.
- 김혜경(1998).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관련 요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숙(2003). 성인학습자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삼근(1997).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여성사회 교육 프로그램개발 기초연구, 사회교육학연구 3(2), 151~184.
- _____(2005). 여성평생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 권두승(2005).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포커스 35, 12-21.
- 박경혜(2001). 중년여성의 자원봉사활동과 정체성 발달의 상관관계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태영(2004). 지역 자원봉사활동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10(2), 121~139.
- 박혜란(1993). 삶의 여성학. 서울:또 하나의 문화.
- 윤명희 외(2010). 평생학습 확대에 따른 지역평생 교육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수산해양교육학회지 22(4), 576~588.
- 이기숙(1996). 중년기 여성의 사회활동에 관한 일고찰, 한국가정학회지 29(3), 163~176.
- 이말순(2005). 창원시 자원봉사실태 및 활성화 방안,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옥(2004). 성인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 인식 요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숙경(2008). 여성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및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모형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경림 외(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신정운(2002). 중년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성호(2006).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7).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학지사.
- 정인순(2001). 여성 성인학습자의 참여 동기와 저해요인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주영(2012). 평생교육교수자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역량개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4(2), 210~223.
- 정지애(2007). 중년여성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지영 외(2012). 건강가정론, 서울:양서원.

- 정진석(2009). 기혼여성자원봉사자의 활동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정보상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주·한동우·이선행(2009).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덕경 외(2006). 자원봉사론, 서울:공동체.
- 최운실(1986). 성인교육 유형에 따른 교육 참여 특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Denzin, N. & Lincoln, Y.(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CA:Sage Publications.
- Padgett, D. K.(1998). Qualitative Method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유태균 역(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나남출판.
- Patton, Q.(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Sage Publications.
- Weber, R. P.(1990). Basic Content Analysis(2nd Ed), CA:Sage Publications.
-
- 논문접수일 : 2012년 11월 20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2년 12월 03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05일